

**CEO 동정**

**철도순직유족회에 쌀 40포대 전달**



사단법인 한국철도협회(회장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는 지난 18일 제 112주년 '철도의 날' 기념식에서 화환 대신 받은 쌀 40포대를 철도산업에 종사 중 순직한 남편을 둔 미망인들의 단체인 '철도순직유족회'에 기증하였다.

김광재 회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꽃피어 살아가는 철도인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익을 실천하고, 불우한 이웃과 함께하는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재 이사장, 경춘선 평내차량기지 현장 점검**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22일 수도권본부 관내 오리~수원 구간 추가역인 보정역과 경춘선 평내차량기지를 방문, 사업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김 이사장은 경춘선 평내차량기지에서 철도공사에서 운영 중인 종합관리동의 근무인원과 규모의 적정성, 중수선 중장비 관련하여 전기관련 이상시 검수하는 장비와 방법 등에 대해 보고받고, 차량기지 건설 홍보 동영상 시청한 후 중수선공장의 기능에 대한 설명 보완을 지시하였다.

또한 감사원 감사시 지적되었던 보축 제방 현장을 확인한 후 보축 제방 승인 경위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특히 경수선 공장에 유치가 되어 있던 고속화 차량 EMU-180에 탑승 운전실과 2층 객차에도 직접 둘러보고 의자의 넓이, 여객의 시야 및 승차감도 세심하게 확인하였다.

이윽고 연말에 개통하는 경춘선 고속화작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였다.

<수도권본부 이덕희 기자>



**계시판**

**금주의 주요뉴스 (10. 17 ~ 10. 21)**

- 수인선 소래고구 구간 '선박통행' 불안불안(경기일보 10. 17)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고시... 수도권 교통혁명 시동(경기일보 10. 17)
- 소외계층과 나는 '사랑의 불씨'(충청일보 10. 17)
- 사랑의 연탄으로 울겨울도 '후관'(충청투데이 10. 17)
-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민자 유치 시동(광남일보 10. 17)
- 광주~대구 광역철도망 구축 나서야(전남매일 10. 17)
- 북선전철 올림픽역 설치 무산 위기(강원일보 10. 17)
- KTX보다 요금 20% 싼 민영 고고철 탄생하나(조선일보 10. 18)
- 경부고속철 2단계 정상화 '지연'(서울신문 10. 18)
- '올림픽역' 설치 무산 가능성(조선일보 10. 18)
- 대전역사 증축사업 가시화(중도일보 10. 18)
- 광주송정역복합센터 투자 유치 설명회(광주매일 10. 18)
- KTX 신경주~울산역 시속 170km로 김숙운행(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대전일보, 금강일보 10. 19)
- 민·융합동 건설산업 공생발전 모색(세계일보, 동양일보 10. 19)
- 수인선 지하화 뜨거운 민의(경기일보 10. 19)
- 철도시설공단 법인카드 멋대로 써와(중도일보 10. 19)
- 글로벌 경쟁력 평가 공공기관 30곳 이상 확대(서울경제 10. 20)
- 철도시설공단, 네팔 철도사업 잇달아 수주(한국일보 10. 20)
- 인천 명물 소래철교 2년째 통행금지(경향신문 10. 20)
- 철도시설공단 재무관리도 '영망'(중도일보 10. 20)
- 신분당선 29일 개통...분당~강남 16분(경기일보 10. 20)
- 철도시설공, 네팔 철도사업 수주(중도일보 10. 20)
- 한-민, 중부내륙철 두고 '갈문올림픽'(충북일보 10. 20)
- 홍천~용문 철도 정부에 강력 요청(강원일보 10. 20)
- "철도 유치 홍천군민 생계와 밀접"(강원도민일보 10. 20)
- 中 고속철 최초 위기(서울경제신문 10. 21)
- 분당선 연장선 환승역사명? 같은 역 다른 이름 헷갈리네 (경기신문 10. 21)
- 도내 광역철도 건설사업 '영터리 설계' (인천일보 10. 21)
- KTX개통 1주년 심포지엄 24일 시의회 대회의실서 (경상일보 10. 21)
- 네팔 철도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경남일보 10. 21)

**삼성SDS(주) 고속철 선로전환기 공급관련 허위서류 제출**

**- 공단, 형사고발 및 損害소송 제기기로 -**

공단은 그동안 28회에 걸쳐 경부고속철도2단계 신경주·울산역 구간에서 KTX열차 지연을 초래한 선로전환기 및 분기기 장애와 관련하여 제품납품과 시공을 담당한 삼성SDS 등 관련업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9월부터 12명의 외국기술자를 포함해 철도공사, 철도기술연구원 등의 전문가들과 납품업체·시공업체 임직원들을 참가시킨 가운데 선로전환기와 분기기에 대해 제품 및 시공 2가지 측면에서 장애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완벽한 정비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업체별 책임소재를 파악해왔다.

공단은 삼성SDS에 대해서는 허위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업무 또는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제품불량 및 하자보수 불이행이나 지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공단 발주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하자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공단은 선로전환기 및 분기기 도입과 시공, 하자보수와 관련된 공단 임직원 9명에 대해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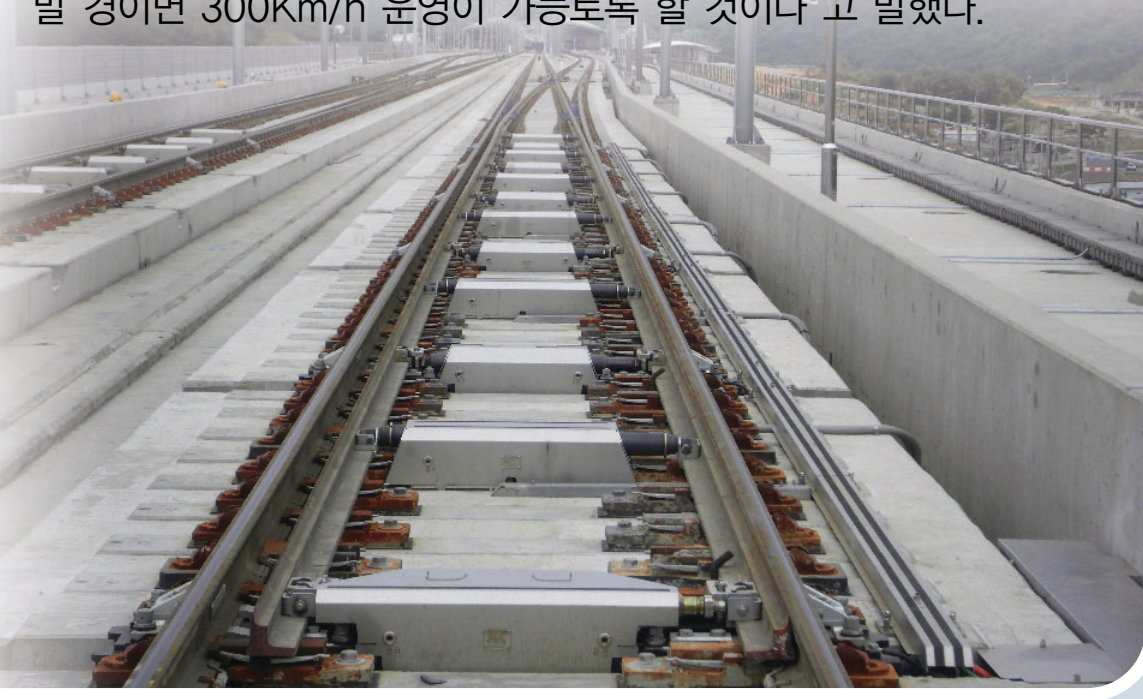
공단에 따르면 선로전환기와 관련해 삼성SDS는 '08년도 입찰당시 스페인에서 시속 300km 이상의 고속철도에 공급한 실적이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여 선로전환기 '하이드로스타'의 낙찰을 받았으나, 2010년 11월 사용개시 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에서는 고속철도 건설에 하이드로스타 공급을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철도시설공단 류승균 전기사업단장은 "장애시설에 대해서는 정비가 이루어져 전환시험과 현차시험을 거쳤고 코레일, 철도기술원 구원과의 합동점검도 무사히 마쳤으나, 철도공사 측이 사용재개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우선 170km/h로 사용을 재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충분한 적응성 시험을 거쳐 10월 말 경이면 300km/h 운영이 가능토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단은 삼성SDS에 대해 입찰시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아포스티유(국제공증)를 받아오도록 2차례나('11년 7월과 9월) 요청을 하고 50일의 충분한 기간을 주었으나 삼성SDS는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허위실적 제출' 의혹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품자체 및 시공 상의 하자가 많은 것으로 판명되었고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일전설과 서우건설사업은 선로전환기의 부실시공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공단은 이와 함께 콘크리트케도용 분기기와 관련해서는 독일 BWG사 제품을 납품하고 시공한 삼표E&C(주)와 케도공영(주)에 제



**공단, 철로변 소외계층 겨울나기 지원**

**- 대전연탄은행과 '2011 사랑의 연탄나눔' 재개식 개최 -**

공단은 지난 14일 본사 대강당에서 대전연탄은행과 함께 '2011 사랑의 연탄나눔' 재개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재개식을 시작으로 대전충청지역 연탄나눔 행사는 약6개월간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공단 임직원과 대전시 이종기 정무부시장, 이희배 동구 부구청장, 한형우 중구 부구청장, 박상도 대전 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및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김 이사장은 "해마다 겨울이 오는 것을 걱정하는 가구가 늘고 있어 연탄배달이 더욱 절실해지는 요즘 철로변 소외계층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전하게 되어 기쁘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과 임직원 100여명은 연탄나눔 재개식 후 동구 중앙동, 대동 소재 독거노인 가정 등 소외계층 50가구에 연탄 1만장을 배달하는 등 총3만장의 연탄을 대전연탄은행에 기증하였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05년 대전연탄은행이 처음 문을 연 이래 매년 대전·충청지역 전문 기업으로서 다양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특연탄나눔행사 재개식을 개최하였으며 그동안 총18만장, 성을 활용해 독거노인 가정의 노후전기시설물 교체, 도배 8000만원 상당의 연탄을 기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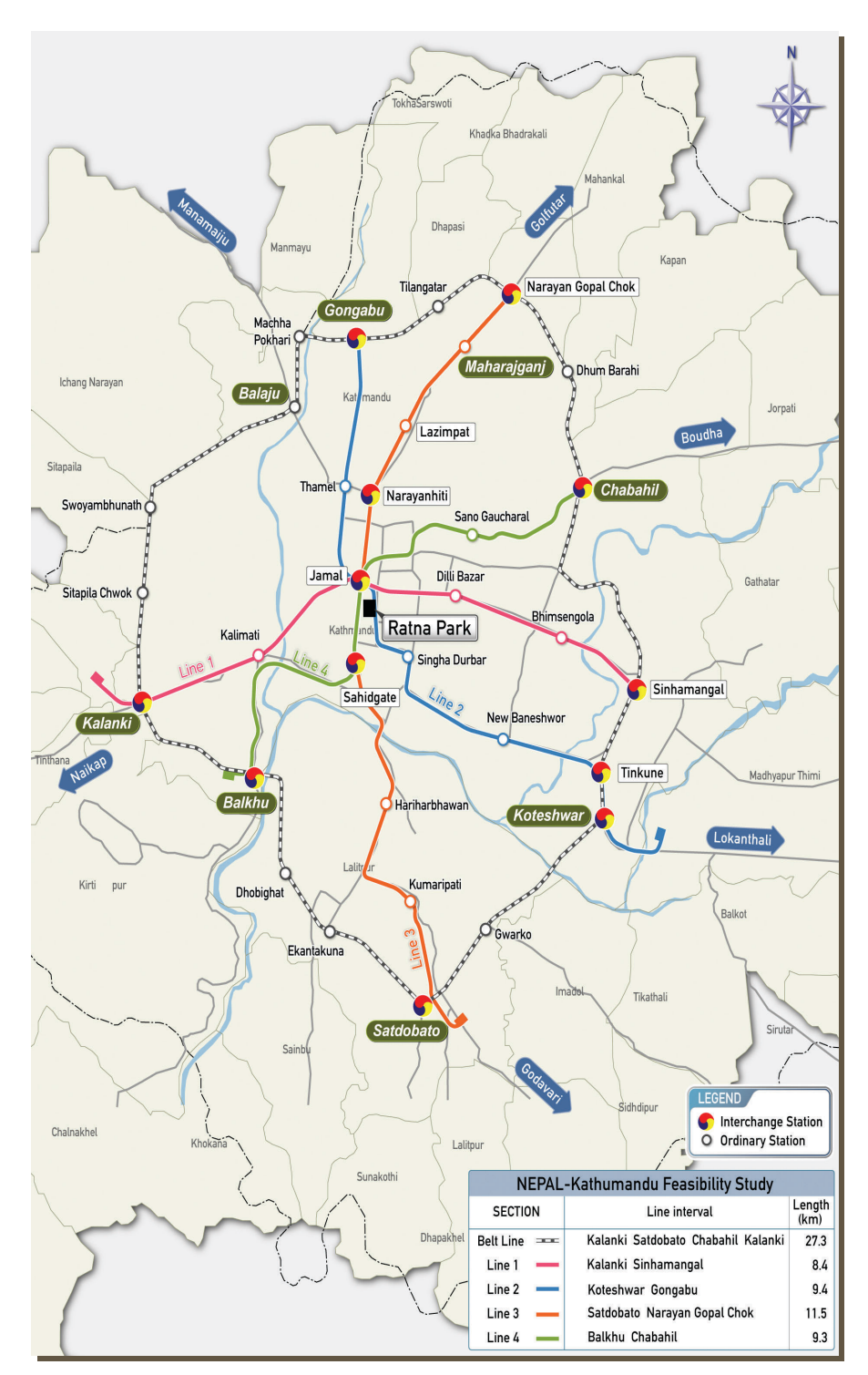
또한 철도건설 전문 기업으로서 다양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특연탄나눔행사 재개식을 개최하였으며 그동안 총18만장, 성을 활용해 독거노인 가정의 노후전기시설물 교체, 도배 8000만원 상당의 연탄을 기증하였다.

또한 철도건설 전문 기업으로서 다양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특연탄나눔행사 재개식을 개최하였으며 그동안 총18만장, 성을 활용해 독거노인 가정의 노후전기시설물 교체, 도배 8000만원 상당의 연탄을 기증하였다.

**네팔 철도사업(MRT 타당성조사용역) 연이은 수주**

**- 기술력 인정받아 남아시아 철도시장 진출 청신호 -**

해외사업본부는 우리나라 컨소시엄이 네팔에서 전기철도 시설개용역에 이어 카트만두 도시철도(MRT) 타당성조사용역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한국 컨소시엄이 올해 네팔 정부가 발주한 철도사업 2건을 모두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다.

네팔 정부가 수도인 카트만두 시내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이 사업에는 프랑스, 인도 및 태국 업체들이 참여해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였으며, 한국 컨소시엄은 기술 및 가격분야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오는 11월 중순까지 네팔 정부와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10개월 동안 5개 노선, 총연장 65.9km의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최적노선 선정 ▲철도역, 차량기지 위치 선정 ▲도시철도 시스템 수립 ▲교통수요 분석 ▲사업비 추정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을 실시하게 된다.

네팔에서 철도사업을 연달아 수주한 것은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은 쾌거로써, 해외사업본부에서는 이를 800억불 규모의 인도 고속철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해 열심히 정진할 예정이다.

<해외사업본부 김재홍 기자>